2015년 순경 3차 한국사 기출해설

해설 : 최진우 교수

1. 미송리식 토기, 민무늬 토기, 붉은 간토기가 사용되었던 시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동제 무기를 사용하여 정복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빈부격차와 계급이 발생하였다.
- ② 농기구는 주로 석기로 만들어졌는데, 반달돌칼, 바퀴날도끼, 홈자귀 등이 사용되었다.
- ③ 이 시대의 사람들은 가락바퀴나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이나 그물을 만들었다.
- ④ 당시 사람들은 사냥 및 고기잡이의 성공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바위그림을 그렸다.
- 2. 다음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① 옥저는 토지가 비옥하고 해산물이 풍부하여 농경, 어로 등 경제생활이 윤택하였고. 매년 10월에는 무천이라는 제천행사를 열었다.
 - ① 고구려는 왕 아래에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와 대사자, 사자 등의 관리가 있었다.
 - © 삼한은 철제 농기구의 사용으로 농경이 발달하였고, 특히 진한에서는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 왜 등에 수출하였다.
 - ② 부여는 10월에 추수감사제인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고, 왕과 신하들이 국동대혈에 모여 함께 제사를 지냈다.
 - ① 동예는 족외혼을 엄격하게 지켰으며, 각 부족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였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3. 근초고왕의 업적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불교를 공인하여 중앙 집권 체제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하였다.
- ② 관등제를 정비하고 관복제를 도입하여 지배 체제를 정비하였다.
- ③ 마한 세력을 정복하고 북으로는 흥안령 일대의 초원 지대를 장악하였다.
- ④ 중국 요서 지방까지 진출하였고, 이어서 산둥 지방과 일본 규슈 지방에까지 진출하였다.
- 4. 다음 자료를 저술한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열면 헬 수 없고 가없는 뜻이 대종(大宗)이 되고, 합하면 이문(二門) 일심(一心)의법이 그 요체가 되어 있다. 그 이문 속에 만 가지 뜻이 다 포용되어 조금도 혼란됨이 없으며 가없는 뜻이 일심과 하나가 되어 혼융된다. 이런 까닭에 전개, 통합이자재하고, 수립, 타파가 걸림이 없다. 펼친다고 번거로운 것이 아니고 합친다고 좁아지는 것도 아니다. 그리하여 수립하되 얻음이 없고 타파하되 잃음이 없다.

①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화엄사상을 정립하였다.

- ② 송광사를 중심으로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독경과 선 수행, 노동에 힘쓰자고 주장하였다.
- ③ 백성들의 신앙 욕구를 고려하여 백련결사를 제창하였다.
- ④ 『대승기신론소』, 『금강삼매경론』을 저술하였다.
- 5.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선왕 때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요동 지역으로 진출하였다.
- ② 군사 조직은 중앙군으로 10위를 두어 왕궁과 수도의 경비를 맡겼다.
- ③ 목축이 발달하였고, 농업은 밭농사 중심이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벼농사도 지었다.
- ④ 중앙 정치 조직은 3성 6부를 근간으로 중대성의 장관인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였다.
- 6. 고려 시대 광종의 개혁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국의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고 목사를 파견하였으며, 과거제도를 시행하여 신구 세력의 교체를 도모하였다.
- ② 국자감을 정비하고, 지방에 경학 박사와 의학 박사를 파견하여 유학 교육의 진흥에 노력하였다.
- ③ 지배층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다.
- ④ 『정계』와 『계백료서』를 지어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였다.
- 7. 다음 자료에 나타나 있는 집권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부터 만약 종친으로서 같은 성에 장가드는 자는 황제의 명령을 위배한 자로서 처리할 것이니 마땅히 여러 대를 내려오면서 재상을 지낸 집안의 딸을 취하여 부인을 삼을 것이며 재상의 아들은 왕족의 딸과 혼인함을 허락할 것이다. 만약 집안의세력이 미비하면 반드시 그러할 필요는 없다. … 철원 최씨, 해주 최씨, 공암 허씨, 평강 채씨, 청주 이씨, 당성 홍씨 … 평양 조씨는 다 여러 대의 공신 재상의 종족이니 가히 대대로 혼인할 것이다.

- ① 고려 후기에 정계 요직을 장악한 최고 권력층이었다.
- ② 성리학을 수용하여 학문적 기반으로 삼고, 불교의 폐단을 시정하려 하였다.
- ③ 가문의 힘을 이용하여 음서로써 신분을 세습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였다.
- ④ 강과 하천을 경계로 할 만큼 대농장을 소유하고도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았다.
- 8. 고려 시대 지방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5도에는 안찰사가 파견되었으며 도내의 지방을 순찰하였다.
- ② 북방의 국경 지대에는 동계·북계의 양계를 설치하여 병마사를 파견하였다.
- ③ 전국의 주민을 직접적으로 지배하기 위하여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였다.
- ④ 조세나 공물의 징수와 노역 징발 등 실제적인 행정사무는 향리가 담당하였다.
- 9. 다음은 한 역사서 서문의 일부분이다. 이 역사서와 가장 유사한 서술 방식으로 기술된 역사서는?

그에 관한 옛 기록은 표현이 거칠고 졸렬하며, 사건의 기록이 빠진 것이 있으므로, 이로써 군후(君后)의 착하고 악함, 신하의 충성됨과 사특함, 나랏일의 안전함과 위태로움, 백성의 다스려짐과 어지러움을 모두 펴서 드러내어 권하거나 징계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마땅히 재능과 학문과 식견을 겸비한 인재를 찾아 권위 있는 역사서를 완성하여 만대에 전하여 빛내기를 해와 별처럼 하고자 한다.

- ①『동국통감』 ②『고려사』 ③『고려사절요』 ④『조선왕조실록』
- 10. 고려 시대 토지 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정 전시과의 과등(科等, 등급)별 토지 지급 액수는 개정 전시과 보다 많았다.
 - ① 군인전은 군역의 대가로 주는 토지로, 하급 관료나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되었다.
 - ⓒ 중앙과 지방의 각 관청에는 내장전이 지급되어 경비를 충당하게 하였다.
 - ② 한인전은 6품 이하 하급 관료의 자제로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되었다.
 - ① 전시과 제도와 관련하여 목종 때에는 지급 대상을 현직 관료로 제한하였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 11. 조선 시대 붕당정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붕당의 출현 당시 척신정치의 잔재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를 두고 기성사림과 신진사림 사이의 갈등이 심해졌으며, 기성사림을 중심으로 동인이 형성되었다.
- ② 이황과 조식의 학통을 계승한 동인은 정여립 모반 사건 등을 계기로 온건파인 북인과 급진파인 남인으로 나뉘었다.
- ③ 노론은 윤증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실리를 중시하는 한편 적극적인 북방 개척을 주장하는 경향을 보였다.
- ④ 현종 때 두 차례의 예송이 발생하면서 서인과 남인 사이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 12. 다음은 조선 시대의 조세 제도에 관한 자료이다. ⑦~ⓒ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처음 삼남 지방은 정해진 결수로 조세 대장에 기록하되 … 나머지 5도는 모두 하지하(下之下)로 정하여 징수하였다. 이후 경기·삼남·해서·관동 모두 1결에 4두를 징수하였다.
 - ① 소출이 10분이면 상상년(上上年)으로 정해 1결당 20두, … 2분이면 하하년(下下年)으로 4두씩 거두며 1분이면 면세하였다.
 - © 농부의 둘째 손가락으로 열 번을 재어 상전척(上田尺)으로 삼고, … 1결에서 조(租)는 모두 30두씩 거두는 것을 정수로 하였다.
- ① ⑦ 제도 하에서는 토지의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 전분6등법, 연분9등법으로 나누고,

조세 액수를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를 내도록 하였다.

- ② ① 제도 하에서는 전세의 비율이 이전보다 다소 낮아졌으나, 대다수의 농민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부담이 더 늘어났다.
- ③ ① 제도에서 조세는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내는데, 1결의 최대 생산량을 300두로 정하고, 매년 풍흉을 조사하여 그 수확량에 따라 납부액을 조정하였다.
- ④ ⓒ의 시행으로 감소된 재정은 지주에게 결작이라고 하여 토지 1결당 미곡 2두를 부담시켜 충당하였다.
- 13. 조선 시대 관리 등용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① 소과에는 시·부 등의 문학을 시험하는 생원시와 경서를 시험하는 진사시가 있었다.
 - ① 기술관을 뽑는 잡과는 2년마다 치러지는데, 분야별로 정원이 있었다.
 - © 소과 합격자는 성균관에 입학하거나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으며, 하급관리가 되기도 하였다.
 - ② 같은 관서 또는 서로 연관이 있는 관직에 친인척을 임명하지 않도록 하거나, 지방관을 연고가 있는 지역으로 보내지 못하도록 한 서경제도가 있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14. 다음 서적이 편찬된 시대에 해당하는 왕의 업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대전통편』 · 『동문휘고』 · 『탁지지』 · 『무예도보통지』
- ①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여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기반을 갖추었다.
- ② 각 붕당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명백히 가리는 적극적인 탕평책을 실시하였다.
- ③ 비변사를 폐지하였고,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회복시켜 왕권을 강화하였다.
- ④ 신진인물이나 중·하급 관리 중에서 유능한 인사를 재교육하는 초계문신제도를 실시하고, 규장 각을 강력한 정치기구로 육성하였다.
- 15. 조선 후기 통치 체제의 변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변사는 16세기 중종 초에 여진과 왜구를 대비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나, 임진왜란 이후 기능이 강화되자 의정부와 6조 중심의 행정 체계는 유명무실해졌다.
- ② 지방군 방어 체제는 16세기 후반 진관 체제였다가, 임진왜란 이후 제승방략 체제로 복구되고 속오법에 따라 군대가 편제되었다.
- ③ 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위영이 설치되면서 17세기 말에는 5군영 체제가 갖추어 졌다.
- ④ 3사의 언론 기능이 변질되었으며 3사는 각 붕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도 하였다.
- 16. 다음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시간 순서에 따라 옳게 나열한 것은?
 - ①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 격침
- ① 원산학사 설립

- © 갑신정변
- ② 임오군란
- 回 신미양요

17. 다음 <보기>와 같은 시기의 문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이항인(里巷人)들은 일컬을 만한 경학이나 내세울 만한 공훈도 없다. 시사(詩社)를 조직 하여 기록할 만한 시나 문장을 남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아! 슬프다. 내가 여러 문집에 있는 사람은 찾아내고,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은 직접 써서 이 책을 가행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 ① 청자에 백토의 분을 칠한 것으로, 안정된 그릇 모양과 소박하고 천진스러운 무늬가 어우러져 정형화되지 않으면서 구김살 없는 우리의 멋을 잘 표현한 분청사기가 유행하였다.
- ② 지붕의 무게를 기둥에 전달하면서 건물을 치장하는 장치인 공포가 기둥 위에만 짜여져 있는 건축 양식이 주로 유행하였다.
- ③ 우리 풍토에 알맞은 약재와 치료 방법을 개발, 정리하여 『향약집성방』을 편찬하고, 『의방유취』를 가행하였다.
- ④ 직업적인 광대나 기생이 산조와 잡가 등을 창작하여 발전시켰다.
- 18.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토지 소유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씨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등을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국유지는 보관 관청이 임시 토지 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① 농민은 관습적인 경작권을 제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 ② 국가가 지주에게 농지를 매입하여 영세 농민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
- ③ 대한 제국 정부 소유지와 황실 소유지, 미신고 토지 및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토지 등은 통 감부가 모두 강제로 빼앗았다.
- ④ 이 사업은 소유권 미확인 토지나 은결을 파악하여 식민지 통치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고 토지를 상품화하여 일본인의 토지에 대한 투자를 보장하였다.
- 19. 다음 ③과 ◎의 각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은(는)'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공위가 재개될 기세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 정부 혹은 위 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 야 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이다.'고 하였다.
 - ①은(는)'한국이 있고야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고서야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또 무슨 단체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자주 독립적 통일 정부를 수립하여야 하는 이때에 있어서 어찌 개인이나 자기의 자주 독립적사리사욕을 탐하여 국가 민족의 백년대계를 그르칠 자가 있으랴.'고 하였다.
- ① ①은(는) 1945년에 독립 촉성 중앙 협의회를 발족시켰다.

- ② \bigcirc 은(는) $8\cdot15$ 광복과 동시에 조선 건국 동맹을 확대 개편하여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결성하였다.
- ③ ①은(는)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 ④ ①, ① 모두 신탁통치안에 반대하였다.

20. 다음 남·북한 사이에 체결된 주요 문서들의 내용 중 일부분이다. 시간 순서에 따라 옳게 나열한 것은?

- ①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 ①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 ©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 통일 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통일은 외세에 의 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② 남과 북은 해주 지역과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 평화 협력 특별 지대를 설 치하고 … 개성 공업 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 발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3 €→7→€→2

 $\textcircled{4} \quad \textcircled{c} \rightarrow \textcircled{7} \rightarrow \textcircled{2} \rightarrow \textcircled{L}$

정답 & 해설

1. 정답 ③

해설 ③ 가락바퀴나 뼈바늘은 청동기 유적지에서도 출토되기는 하나 주로 신석기시대 유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지문이다.

- ① 청동기시대는 잉여 생산물의 축적과 사적 소유, 전쟁의 발생으로 빈부의 차이와 노예가 등장하면서 계급사회로 전환되었다. 또한 계급사회가 출현하면서 단군왕검과 같은 군장이라는 지배자가 북부지역에서부터 등장하였다. 우리나라 청동기는 북방 스키토 시베리안 계통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주로 무기나 제기, 장식용 등 지배층의 유물에 쓰였으며 청동기 제작과 관련된 정문적인 장인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 ② 청동기시대에는 청동 농기구는 제작되지 않았고 여전히 반달 돌칼, 홈자귀, 바퀴날 도끼등과 같은 석기 농기구가 사용되었다.
- ④ 청동기시대 예술은 종교와 밀착되어 있었고 기하학적 무늬 등과 짐승과 사람 모양의 토우를 통해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주술적인 성격이었다. 특히 암각화는 바위면에 새긴 그림으로 풍요 를 비는 주술적 신앙을 표현한 것으로 청동기시대에 이르러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2. 정답 ①

해설 X - (1) 고구려에서는 10월 추수감사제인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국동대혈에서 개최하였다. 옥저는 함경도 함흥평야를 중심으로 한 부족국가로 왕이 없고 거수, 후, 읍군이나 삼로라는 군장이 다스리는 군장국가였다. 옥저는 어물과 소금 등 해산물이 풍부하고 토지가 비옥하여 오곡이 잘 자라 밭농사하기에 적합하였다. 옥저에는 민며느리제라는 혼인 풍속과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한 후 뼈를 추려 가족 공동무덤 안에 안치하는 세골장의 풍습이 있었다.

- (L) 부여의 지배층으로는 왕족과 가족의 이름을 딴 족장(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들이 있었으며, 족장(가)들은 군장으로 대사자와 사자 등의 관료를 거느렸다. 고구려 지배층들은 대가, 고추가 등이 있었고 특히 대가들은 반독립 상태로 그 아래 사자, 조의, 선인을 두고 있었다.
- (c) 삼한에서는 괭이, 낫, 보습, 호미 등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였고, 저수지 등 관개 수리 시설로 농업이 발달하였다. 삼한의 변한에서는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 왜 등에 수출하였고, 철은 교 역에서 화폐처럼 사용되었다.
- (z) 고구려에서는 10월 추수감사제인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국동대혈에서 개최하였고 부여는 12월에 영고라는 제천행사를 열어 술과 음식을 먹었고 죄수를 풀어주기도 하였다. 영고라는 부여의 제천행사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개최되었고 농사의 풍요와 수렵 생활을 기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 O (ロ) 동예는 강원도 북부 동해안에 위치하였던 군장 국가이다. 동예는 토지가 비옥하고 해산물이 풍부하여 농경, 어로 등의 경제생활이 윤택하였고 별을 관측하여 그해 농사의 형편을 점치기도 하였다. 또한, 누에를 쳐 명주와 삼베를 짜는 등 방직 기술이 발달하기도 하였으며 단궁(활), 과하마(조랑말), 반어피(바다표범의 가죽)가 특산물로 유명하였다. 동예에서는 동성혼을 금지하는 족외혼이 엄격하게 지켜졌으며 다른 부족의 생활권 침범 시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는 책화라는 씨족 사회의 유습이 남아있었다.

3. 정답 ④

해설 ④ 백제 근초고왕은 고구려와 황해도 지방을 두고 경쟁하였으며, 371년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 또한 익산으로 옮긴 마한을 정벌하여 전라남도 해안까지 영토를 확장하였으며 가야 7국을 병합하여 가야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해외로는 중국의 요서 와 산둥반도에 진출하였고, 일본의 규수 지방에 진출하여 국제적 상업국가로 발전하였다. 특히 중국의 요서지방에 진출하면서 진평군을 설치하였다.

- ① 백제 침류왕은 근구수왕의 맏아들로 중국 진나라에 조공을 바쳤으며, 동진의 승려 마라난타가 백제에 왔을 때 이를 왕궁에 영접하여 불교를 받아들였다. 백제는 이때부터 불법(佛法)을 시행하였다.
- ② 백제 고이왕은 정사를 보는 남당을 설치하였으며, 6좌평제도, 16관등제, 자·비·청의 복색을 정비하는 등의 관료 조직을 정비하였으며 삼국 중 최초로 율령을 반포하였다.
- ③ 고구려 장수왕은 남북조와의 다면 외교를 통해서 427년 통구에서 평양으로 천도하였고 남하 정책을 추진하였다. 장수왕은 중국의 유연과 연합하여 거란의 일파인 지두우를 분할 점령하여 흥 안령 일대를 장악하였다. 475년 한강 유역을 공격하여 백제의 개로왕을 전사시켰고, 한강 이남을 점령하면서 죽령에서 남양만까지 국경을 확장하였다.

4. 정답 ④

해설 주어진 자료는 원효의 「대승기신론소」의 내용 중 일부이다.

- ④ 원효는 신라 무열왕과 문무왕 시절 활동한 승려로 개인적인 교화 활동을 주로 하였고, 저술활동을 많이 하였다. 화쟁사상과 일심사상 등을 통해 중관파와 유식파 등 여러 종파의 통합을 강조하였다. 원효는 일체 만유는 같은 법성을 가졌고 모두 성불할 수 있다는 법성종을 분황사에서 창시하였다. 또한 「대승기신론소」, 「화엄경소」, 「금강삼매경론」, 「아미타경소」, 「십문화쟁론」 등을 저술하여 불교 이해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중국과 일본, 거란 등의 불교에 영향을 주었다.
- ① 의상은 진골 출신으로 영주 부석사와 양양 낙산사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원융사상을 설파하였으며 교단을 세우고 제자들을 양성하였다. 그는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화엄사상을 통해 지배층을 중심으로 사회 통합을 꾀하여 문무왕 시절 전제 왕권을 강화하였다. 또한 아미타 신앙과 함께 현세에서 고난을 구제받고자 하는 관음 신앙을 이끌며 불교를 대중화하였다.
- ② 고려 무신집권기에는 불교의 세속화에 반발하면서 결사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때 조계종 계열의 지눌은 순천 송광사에서 불교계의 타락을 비판하며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선수행, 노동, 독경에 힘쓸 것을 강조하면서 수선사 결사를 조직하였다. 지눌은 민중불교를 강조하며 개혁적인 최충헌 정권과 개혁적 승려, 지방민의 호응을 얻었다.
- ③ 무신집권기 요세는 강진 만덕사에서 수선사에 대항하기 위해 백련사 결사를 조직하였다. 백련사 결사는 지방민을 통해 유지되다가 몽골 항쟁에 대한 의지를 표방하며 최우와 밀착되어 최씨 정권의 지원을 받았다. 백련사 결사는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참회하는 법화 신앙에 중점을 두었으며 미타정토 신앙을 실천 방향으로 강조하여 농민과 천민층 등의 피지배층의 지지를 받았다.

5. 정답 ④

해설 ④ 발해는 당의 3성 6부제를 근간으로 하는 중앙 관제를 마련하였지만, 당과 달리 명칭과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독자적인 형태였다. 발해는 정책 집행 기구인 정당성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였다. 또한 별도의 합의 기구가 없었으며 정당성이 최고 합의 기구의 역할을 하였고 이로 인해 정당성의 대내상이 수상의 역할을 하였다.

- ① 발해 선왕(대인수)은 대야발의 후손으로 왕위에 올랐다. 선왕은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요동으로 진출하여 요동의 소고구려국을 병합하였고, 남쪽으로는 신라와 국경을 접할 정도로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등 발해 최대 영토를 확보하였다. 이외에도 선왕 시절에는 5경 15부 62주의 지방 제도가 정비되었으며 당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 ② 발해는 중앙군으로 10위를 설치하였고 각 위는 대장군과 장군이 통솔하여 왕궁과 수도의 경비를 맡겼다. 또한 농병일치의 지방군이 있었고 군사적 요충지에 특수병이 근무하였다.
- ③ 발해는 밭농사가 중심이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벼농사도 이루어졌다. 발해는 생업에서 농업보다 목축의 비중이 컸으며 특히 솔빈부의 말은 주요 수출품이기도 하였다. 또한 철, 구리, 금,은 등 금속 가공업과 삼베, 명주, 비단 등의 직물업, 도자기업 등 다양한 분야가 발달하였다.

6. 정답 ③

해설 ③ 광종은 왕권 강화책의 일환으로 관료들의 위계서열을 잡기 위해서 자·단·비·녹의 4색 복제를 제정하였으며, 후삼국의 분열기에 호족들이 불법으로 소유한 노비들을 풀어주어 호족을 견제하고 국가 재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였다. 또한 후주의 귀화인 쌍기(최초의 지공거)의 건의로 과거 제도를 실시하여 신구세력의 교체를 통해 공신과 호족 세력을 약화시켰다.

- ① 고려 성종 때 최승로의 건의로 지방 주요 도시에 12목을 설치하여 최초의 지방관인 목사를 파견하였다.
- ② 고려 성종은 개경에 국자감을 설치하였고 지방의 12목에 경학 박사와 의학 박사를 보내 지방 교육을 장려하였다. 또한 지방에 향교를 설치하여 교육을 장려하였으며, "교육이 아니면 인재를 얻을 수 없다."는 교육 조서를 반포하였다.
- ④ 고려 태조는 관리들에게 신하된 자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기술한 「정계」와 「계백료서」 8권을 지어 반포하였지만 현재 전하지는 않고 「고려사」에 이름만 전해진다.

7. 정답 ②

해설 주어진 자료는 충선왕의 재상지종에 관련된 내용으로 당시의 집권 세력은 권문세족이다. ② 신진사대부에 대한 설명으로, 신진사대부는 고려 후기 과거를 통해 중앙 정치에 진출한 신진 관료들로 주로 지방의 향리 자제들이 다수였다. 이들은 주로 무신 집권기부터 정계에 진출하였고, 고려 후기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뒷받침하면서 성장하였다. 신진사대부들은 고려 말 현실 사회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개혁 사상으로 성리학을 받아들였으며, 성리학의 형이상학적 측면보다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실천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권문세족과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였으며 이후 고려의 불교는 쇠퇴하게 되었고 성리학이 새로운 국가 사회의 지도 이념으로 등장하게 하였다.

①, ③, ④ 권문세족은 전기의 문벌귀족, 무신정권 시기 등장한 권력 가문, 원 간섭기의 친원파

귀족 등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이들은 도평의사사와 정방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였으며 음서를 통해 정계에 진출하였다. 또한 강과 하천을 경계로 하는 대농장을 소유하였으며 면세와 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였다.

8. 정답 ③

해설 ③ 고려의 지방 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불완전한 중앙 집권으로 모든 지방에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고 지방관이 파견된 주군, 주현보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과 속현이 더 많았다.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된 것은 조선시대이다.

① 고려시대 5도는 행정구역으로 안찰사가 파견되었다. 하지만 안찰사는 임기 6개월의 임시직으로 권한이 약하여 실질적인 지방 통제는 어려웠다. 또한 안찰사는 도의 장관이었지만 수령보다 낮은 품계의 5품과 6품의 하급관리였기 때문에 도내에 있는 군현의 수령을 감독할 수 없었다. ② 고려의 양계는 북계와 동계로 구성된 군사지역 병마사가 파견되었다. 병마사들은 정3품으로 민정과 군정의 기능을 하였으며 정3품의 품계를 받았으며 주진군을 지휘하면서 국경을 방어하였다. 병마사들 또한 안찰사보다 지위가 높아 문종 때는 병마사들을 감독하기 위해 감창사를 파견하기도 하였다.

④ 고려시대 향리들은 그 권한이 강하였다. 향리들은 향촌의 실질적 지배 세력으로서 조세·부역·소송 등 행정 사무를 담당하였으며 노역부대인 일품군을 지휘하며 지방군의 장교로 선임되기도 하였다.

9. 정답 ②

해설 주어진 자료는 「삼국사기」 편찬 목적에 관한 내용 중 일부이다. 「삼국사기」는 고려 중기 인종 때 묘청의 난 직후 김부식이 중심이 되어 왕명에 따라 편찬한 관찬 사서로, 우리나라 역사서와 중국의 역사서를 두루 인용한 삼국에 관한 역사서이다. 「삼국사기」에는 유교사관에 입각한 신라 계승 의식이 강하게 나타나 있으며 본기·연표·지·열전으로 구성된 기전체의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으나 세가편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등 신라 고유의왕호를 사용하였으며 삼국의 왕을 본기편에 기술하여 중국과의 대등함을 과시하였다.

- ② 「고려사」는 조선시대 세종의 명으로 편찬을 시작하여 문종 원년에 김종서와 정인지 등이 완성된 것으로 기전체 양식으로 고려사를 정리하였다. 「고려사」는 자주적 입장에서 국왕 중심으로 고려사를 재정리하였고, 우왕과 창왕을 부정적으로 서술하며 열전에 수록하였다.
- ① 「동국통감」은 조선시대 성종 때 「고려사절요」와 「삼국사절요」를 토대로 하여 편년체로 고조선 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최초의 통사이다. 삼국을 무통의 시대로 보아 고구려 계승론과 신라 계승론의 갈등을 해소하였으며 국왕과 훈구세력, 사림세력이 모두 참여하여 관찬 사서의 완 성이라는 의미를 지녔다.
- ③ 「고려사절요」는 「고려사」에 빠진 부분을 보완한 것으로 편년체로 「고려사」와는 달리 관료적 입장에서 고려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 ④ 「조선왕조실록」은 태조부터 철종까지의 역대 25대 왕대의 사실을 편년체로 서술한 것으로 왕의 행적과 국정 전반을 기록하였으며 천재지변에 관한 기록까지 소상히 담고 있는 역사서이다.

10. 정답 ②

해설 O-(a) 한인전은 경정전시과 때부터 과거 합격 후 실직을 얻지 못한 자나 6품 이하 관리의 자제 중 무관직자에게 품위와 생계유지를 위해서 지급되었다. 한인전은 세습되지 않았다. X-(a) 개정전시과와 경정전시과로 정비되면서 전지와 시지의 지급량이 감소하였다. 특히 경정전시과 때는 수급 기준을 전지 지급 총액으로 합산하고 단일화하여 시지가 대폭 감소하였다. (L) 군인전은 영업전으로 2군 6위의 직업군인에게만 지급된 토지로, 1/10을 수취하였으며 직역이 세습되어 군인전 또한 세습되었다. 구분전이 하급 관리나 군인들의 유가족에게 생활대책으로 지급되었다.

- (C) 내장전은 왕실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다. 중앙과 지방의 국가기관에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된 것은 공해전이다.
- (n) 목종 때 개정전시과는 전·현직 관리를 대상으로 관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전국의 토지를 지급 하였다. 개정전시과부터 군인전이 지급되기 시작하였으며 퇴직은 현직에 비해 몇 과를 낮추어 지 급하였다. 현직 관리에를 대상으로만 토지를 지급한 것은 경정전시과 때부터이다.

11. 정답 ④

해설 ④ 조선 현종 때는 서인과 남인의 정치 철학의 갈등인 예송논쟁이 2차례 발생하였다.

주 장	서 인	남 인
배 경	 효종의 정통성 문제 정치 철학의 갈등 : 신권 강화의 서인, 왕권 강화의 남인 예학의 차이 	
기해예송(효종)	1년(기년설) - 채택	3년(참최설)
갑인예송(효종비)	9개월(대공설)	1년(기년설) - 채택
근 거	「주자가례」	「국조오례의」
국왕에 대한 태도	왕사동례	왕사부동례
정치적 입장	신권 강화론	왕권 강화론
결 과	 1차 예송: 서인의 기년설 채택 2차 예송: 남인의 기년설 채택으로 정권 교체 남인 정권 수립: 서인에 대한 공격 없이 공존의 원칙 유지 	

- ① 명종 때 심의겸의 도움으로 정계에 진출한 기성사람들은 외척세력에 대해 온건한 입장이었고 구 체제적인 요소를 옹호하였으며 이후 서인을 형성하였고, 선조 때 정계에 진출한 신진사람들은 척신 정치를 척결하는 강경한 입장으로 구 체제의 완전한 타파를 강조하였으며 후에 동인을 형성하였다.
- ② 정여립 모반 사건과 정철의 건저의 문제를 계기로 북인(조식과 서경덕 계통)과 남인(이황 계통)으로 분열되었다. 북인은 이산해 등을 중심으로 정철의 사형을 주장하는 강경파, 남인은 유성룡 등 정철의 유배를 주장하는 온건파였다.
- ③ 경신환국 이후 서인은 송시열을 중심으로 하는 강경파 노론과 윤증을 중심으로 하는 온건파 소론으로 분열되었다. 노론은 남인의 처벌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였고 대의명분을 중시하며 민생 안정을 중시하는 보수적 입장이었다. 소론은 실리를 중시하면 적극적으로 북방 개척을 주장하는 진보적 입장이었다.

12. 정답 ②

해설 (T) 영정법(인조) (L) 연분 9등법(세종) (E) 조선 초기 과전법 상의 조세제도

- ② 임란 이후 연분 9등법이 많은 페단과 부정을 낳자 인조는 연분 9등법을 폐지하고, 전세량을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4두로 고정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덜고자 하여 영정법을 시행하였다. 영정법의 실시로 전세의 비율은 감소하였지만 추가적인 비용 부담으로 농민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지 않았으며 가난한 소작농에게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다.
- ① 조선 세종 시기 토지 비옥도를 고려하여 수등이척법에 따라 토지의 등급을 6개로 나누는 전분 6등법, 군현 단위로 풍흉에 따라 연분을 책정하여 9등급으로 나누어 1결당 20두에서 4두로 차등적으로 부과한 연분 9등법이 시행되었다.
- ③ 연분 9등법에서는 1결의 단위를 수확량 300두에서 400두로 상향 조정하여 세율이 그 전보다 하향 책정되어 1/20에서 1/100으로 낮아졌다.
- ④ 영조는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감하여 농민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균역법의 시행으로 부족한 군포를 충당하기 위해 한량과 교생 등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포 1필을 부과하였고, 지주에게 1결당 2두의 결작을 부과하였다. 또한 왕실 경비로 사용되던 어세와 염세, 선세 등을 균역청에서 관할하게 하였다.

13. 정답 ①

해설 O - (E) 문과의 소과 합격생은 백패가 수여되었으며, 생원과 진사의 칭호를 받았다. 또한 초급 문관에 임명될 자격이 부여되었으며 면역의 특권, 대과 응시자격 및 성균관 입학 자격이 수여되었다.

X - (¬) 문과의 소과는 초급 문관 시험으로 유교 경전을 시험하는 생원과와 시·부 등의 문학을 시험하는 진사과로 구분되었다.

- (L) 조선시대 잡과는 문과와 무과처럼 3년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식년시가 원칙이었다. 하지만 비정기적으로 시행되던 증광시에서도 시행되었다. 조선시대 잡과는 해당 관청에서 주관하였고 초시와 복시로 구성되었다. 총 46명(역과-19명, 음양과-9명, 의과-9명, 율과-9명)을 선발하였다. 수공업자와 상인도 응시가 가능하였으며 합격자에게는 백패를 수여하였다.
- (z) 조선시대 실시된 상피제도는 관리 임명 시에 친인척을 같은 부서에 발령하지 않고, 관리의 출신 지역에 발령을 내지 않아 권력의 집중과 관리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고려시대보다 더욱 철저하게 시행되었다. 관리 임명과 주요 법령 제정 시 대간(사간원과 사헌부)의 서명을 받아야 했던 서경제도는 서얼이나 재가녀의 후손, 범죄자들을 구별하여 관리를 채용함으로써 양반 관료 사회의 품격을 유지하고 신분제의 문란을 막기 위해서 시행되었다.

14. 정답 ③

해설 주어진 자료의 서적들은 정조 시절 편찬된 것이다.

- ③ 흥선대원군은 왕권 강화책의 일환으로 비변사를 혁파하고 의정부와 삼군부(신영·남영·마병소)를 부활시켜 정치와 군사를 분리시켰다.
- ① 정조는 왕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1785년 왕의 친위부대로 장용위를 설치하였고 이후 1793년

장용영으로 이름을 바꾸어 5군영보다 중시하였다.

- ② 정조는 영조의 완론탕평이 오히려 척신 정치를 부활시켰다고 비판하면서 '붕당을 없애되 명절 (名節)을 숭상한다.'하여 임금의 은혜를 강조하고 당파의 옳고 그름을 명백히 가리고, 충역과 시비, 의리를 분명히 하는 준론탕평을 강조하였다.
- ④ 정조는 젊은 관료들을 재교육하여 정조의 정치철학을 주입하는 초계문신제(문신을 대상으로 하는 초계문신 문강, 무신을 대상으로 하는 선전관 무강으로 구성)를 실시하였고 학문연구 기관 인 규장각을 창덕궁에 설치하고 그 기능을 확대하여 개혁 정치의 중심 기구로 삼았다.

15. 정답 ②

해설 ② 조선시대 지방군 방어 체제는 15세기 세조 때 진관체제, 16세기 을묘왜변 이후 제승방 략 체제, 임진왜란 이후 진관 체제를 복구하고 양천혼성군의 속오군 체제로 정비되었다.

- ① 비변사는 중종 때 삼포왜란 이후 병조 소속의 임시기관으로 설치되었다. 을묘왜변 이후 명종 때 전국의 국방 문제를 합의하는 상설기구로 발전하였으며 임진왜란 이후 외교와 인사 문제, 왕실 결혼 문제 등 국정 전반의 문제를 협의하는 국가 최고 기구가 되었다. 비변사는 조선 후기로 갈수록 참여 인원이 증가하면서 그 기능은 강화되어 세도정치시기에 세도 가문이 비변사의 요직을 차지하면서 왕권을 제약하였다.
- ③ 5군영은 국내외 정세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조직되었다. 왕이 통제할 수 없었고, 병조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 부대로 서인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군사기구였다. 선조 때 임진왜란 중 훈련도감이 설치되었고, 인조 시절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이 설치되었으며 숙종 때 금위영이 설치되었다.
- ④ 삼사는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으로 구성되었으며, 과거 성적 우수자와 능력과 학문, 도덕성이 겸비된 젊은 인재들이 주로 임명되었다. 삼사는 국왕과 의정부, 6조를 견제하며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였다. 하지만 조선 후기 잦은 환국으로 붕당 정치가 변질되면서 삼사는 공론을 반영하기보다는 상대당 비판에 앞장서는 등 많은 폐단을 야기하였다.

16. 정답 ②

해설 (¬) 제너럴 셔먼호 사건(1866. 7) - (□) 신미양요(1871. 3) - (□) 임오군란(1882. 6) - (□) 원산학사 설립(1883) - (□) 갑신정변(1884. 10)

17. 정답 ④

해설 주어진 자료는 18세기 이후 서리 출신의 김천택이 역대 시조와 가사를 모아 편찬한 「청구영언」의 서문이다.

- ④ 조선 후기 향유층의 확대와 음악이 다양화되었다. 특히 양반층은 가곡·시조를, 서민층은 민요를 선호하였다. 또한 직업적인 광대와 기생이 판소리, 산조와 잡가 등을 창작하여 발전시켰다.
- ① 분청사기는 고려 말 원으로부터 북방 가마의 기술이 도이되면서 사용된 도자기로 관공서에서 주로 사용되었으며, 조선 초기까지 발전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청화백자가 대량 생산되어 민간에서 유행하였다.
- ② 주심포 양식에 대한 설명으로 주심포 양식은 고려 전기 유행하였다. 다포 양식이 고려 후기

에 등장하여 조선 시대 건축에 영향을 주었다.

③ 「향약집성방」은 조선 전기 세종 때 유효통이 「향약채취월령」을 토대로 편찬하였으며, 자주적 의학 기술과 약재, 치료 방법을 개발, 정리하였다. 「의방유취」는 조선 전기 세종 때 전순의가 왕 명으로 중국의 의학 서적을 토대로 만들었으며, 365권으로 된 동양 최대의 의학 백과사전이다.

18. 정답 ④

해설 주어진 자료는 1912년 토지 조사령의 내용으로 일제는 이후 토지 조사 사업을 명분으로 한 토지 약탈을 실시하였다.

- ③, ④ 일제의 토지 조사 사업은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 확립을 표면적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토지를 약탈하여 식민 통치 기반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일제는 미신고 토지와 공공기관의 토지, 마을과 문중의 공유지, 초원, 황무지 등을 총독부에서 모두 약탈하였고 이 토지를 일본 농민이나 동양척식주식회사, 불이흥업 등에 헐값에 팔면서 조선내 일본인 지주가 증가하였다. 또한 토지 조사 사업은 총독부의 지세 수입 증가와 식민지 지주제 강화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 ① 일제는 토지 조사 사업에서 토지의 소유권만을 인정하고 농민에 대한 소작권, 경작권, 공유지 사용권인 입회권, 개간권, 도지권 등은 부정하였다.
- ② 토지 조사 사업은의 기본 원칙은 기한부 신고주의 였으며, 불복자에 대해서는 증거주의를 채택하였다. 미신고 토지의 경우 토지를 약탈하여 갔다.

19. 정답 ②

해설 (7) 1946년 이승만의 정읍 발언

- (L) 1948년 김구의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 ② 여운형은 광복 전의 건국 동맹을 모체로 해방 직후인 1945년 8월 15일 건국 준비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건국 준비 위원회는 여운형(위원장) 중심의 좌익과 안재홍(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중도 우익이 참여한 좌우 합작의 조직이었으나 극우세력의 불참과 여운형, 박헌영의 좌익이 중심이었다. 건국 준비 위원회는 각 지역에 지부를 설치하고 치안대를 조직하여 전국의 치안을 담당하였다.
- ① 이승만은 해방 이후 남한 우익의 통합 단체인 독립 촉성 중앙 협의회를 조직하였다.
- ③ 1948년 유엔 소총회에서 가능한 지역에서 단독 선거를 결의하자 김구는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을 발표하고, 남북협상을 주도하는 등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였다.
- ④ 모스크바 3국 외상 회담 이후 우익 세력인 김구의 한국 독립당과 이승만 계열의 독립 촉성 중앙 협의회, 송진우 계열의 한국 민주당 등은 반탁을 주장하였다.

20. 정답 ③

해설 (C)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 - (T)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 (L) 2000년 6·15 남북 공동 성명 - (E) 2007년 10·4 선언(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